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논 문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UCCN 프로그램의 역할을 중심으로
남 기 범

도시 문화생태계에 대한 유럽의 관점
실비아 아만

우리의 실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지역문화 거버넌스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실험
권 경우

문화생태계 조성: 2019 유럽 문화 수도 마테라의 경험
로젤라 타란티노

문화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역 국립 박물관의 역할
장상훈

문화적 권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문화21 플러스"
마르타 요베트

International Jou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4 (2023): 35-49
© Jinju Culture and Tourism Foundation

우리의 실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지역문화 거버넌스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실험

권 경 우*

초 록

서울시 성북구의 문화 거버넌스 사례로서 '공유성북원탁회의'는 한 도시에서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네트워크로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참여와 활동, 변화에 이르는 새로운 기획이자 출발선이었다. 2014년 1월 처음 시작된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서울시 성북구라는 한 도시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과 협업을 통한 실험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실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역예술가들의 이익단체가 아니며, 동시에 문화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만든 협력단체도 아니다. 오히려 지역이라는 공간을 상상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라는 작지만 거대한 지역사회생태계 차원에 지역 문화예술생태계를 접목시키는 실험을 시도한 것이다.

이 네트워크의 강점은 문화예술 영역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문화기획자와 마을활동가, 주민예술가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나는 공유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공통의 경험을 축적하고, 지역사회의 공통 현안과 의제를 다루고, 이를 통해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장해간다. 이때 가장 큰 장점은 개별적 활동을 넘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와 구조를 통해 마을 활동과 지역축제, 예술 활동,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경제 활동, 청년창업, 대학과의 협력 수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을 이어갈 수 있었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단단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유연한 플랫폼에 가깝다.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은 철저하게 연결과 공유, 연대와 확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확장의 핵심은 결국 주체의 재생산, 즉

* 권경우는 성북문화재단의 공연예술운영단장이다. 문화연구/문화이론을 공부하고 대학 강의와 문화비평 활동을 하다가, 2014년 11월부터 성북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지역문화 활동을 하면서 아동과 청년, 노인 등 다양한 정체성의 주체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호혜와 환대, 공존의 가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싶다. 저서로는 착한 사람들의 나쁜 사회 (2016) 등이 있다.
이메일: nomad70@daum.net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그들이 자신의 문화적 실천과 정치적 실천 등 일상의 실천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과 시장 등 동네 한복판으로 진입하면서, 문화 협치와 마을자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견해, 인종, 성별, 장애, 세대 등 차이를 뛰어넘어 문화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지역공동체를 상상하는 일이며,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것은 혼자 혹은 국가나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친구'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고, 나아가 나의 일상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키워드: *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구, 성북문화재단, 문화 협치, 거버넌스, 예술가 네트워크*

I.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18년 5월 2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유럽 회의에서는 '제3회 국제문화상'(International Award UCLG-Mexico City-Culture 21) 공동수상자로 프랑스 리옹과 함께 서울시 성북구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서울시 성북구·성북문화재단·공유성북원탁회의의 세 주체가 공동으로 민관참여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 협치를 실행해온 사례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문화정책의 완벽한 사례'라는 찬사를 해주었다. 서울시 성북구라는 지방 도시 차원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애쓴 수많은 예술가,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 등에게 큰 힘이 되는 수상이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UN으로 알려진 '세계지방정부연합'에서 수상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문화예술계에는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문화도시 및 창의도시 등 여러 담론에도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이 국가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재정, 성평등, 문화, 사회통합, 인권 문제를 주 의제로 다루며 지방 정부들이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라는 차원에서, 당시 수상이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 도시들의 고민을 서울시 성북구라는 작은 도시에서 혁신적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고, 우리의 고민과 실험이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동시대 도시를 계획하고 삶을 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 도시에서 지역문화 차원의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도시의 실험을 펼쳐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리고 이를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 그러한 움직임이나 활동은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영향력이나 권력, 정치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현실에 영향력을

끼쳐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 거대하고, 그 안의 시스템은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겠다는 생각과 현실의 괴리는 클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투표와 같은 민주주의제도의 정치 행위를 통한 방법이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목도하는 것처럼 정치제도를 통한 변화는 수많은 한계와 오류를 갖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가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현실과 이상의 격차는 점차 커지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지치거나 퇴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을 바꾸는 일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하더라도 실제로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바꾸는 일이 중요한 것도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는 일종의 가족공동체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문제 등 커다란 정치적 이슈에는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 참여하더라도 의외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즉 동네의 현실에는 무지하거나 무감할 때가 많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사회는 소외되고, 정작 그 지역공동체를 주도하는 것은 소수의 이익단체들인 경우가 많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성북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들의 자율적인 네트워크인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실험은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참여와 활동,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획이자 출발선이었다.

II. 공유성북원탁회의라는 모델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서울시 성북구라는 한 도시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과 협업을 통한 실험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실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지역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이익단체가 아닐뿐더러, 동시에 문화재단이라는 공공문화예술기관이 자신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만든 협력단체도 아니다. 오히려 지역이라는 공간을 상상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이라는 작지만 거대한 지역사회생태계 차원에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를 접목시키는 실험을 시도한 것이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2012년 9월 성북문화재단의 설립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생태계를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의 공동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북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성북문화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민간 문화예술인들의 조합이 잘 들어맞은 셈이다. 2014년 1월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매월 전체 모임을 이어가고 있으며, 매년 체육대회와 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율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누구나 초대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커뮤니티이다. 때론 과도한 개방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이나 논의구조에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10여 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운영 원리는 2015년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 내규에 잘 나와 있다. '자율적 활동(자발성)', '문화민주주의(민주성)', '우정과 협력(연대성)', '문화다양성을 통한 차이의 존중(다양성)'이라는 네 가지가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와 공동운영위원장 선출 등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매년 20-30명 정도로 참여한다. 운영위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나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오히려 월 1만 원의 회비를 내고 시간 등을 제공하면서 활동한다. 운영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는데, 1인은 운영위원 중에서 투표

그림 1. *공유성북원탁회의 전체 모임*

를 통해 선출하고 나머지 1인은 추천과 자천 등으로 '사다리 타기'라는 제비뽑기 방식을 따르고 있다. '사다리 타기'는 일종의 '신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상호견제를 통해 커뮤니티의 활동에 있어서 민주성을 강화하고 유지하려는 장치로 작동한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제한되며 연임이나 재임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선출과 운영방식은 공유성북원탁회의 내외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아가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의 모델을 실험하는 것과 같다. 매월 진행하는 전체 모임에서는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모두가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매월 그러한 시간을 견디고 함께 즐기는 이들이 결국 핵심 그룹으로 남는 방법이다. 전체 모임에서는 각자 자신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다양한 입장에 따라 토론하고 논쟁한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 공동의 행동이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격려가 공존하는 자리이다.

이 네트워크의 강점은 문화예술 영역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문화기획자와 마을활동가, 주민예술가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나는 공유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공통의 경험을 축적하고, 지역사회의 공통 현안과 의제를 다루고, 이를 통해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장해간다.

그림 2. *정릉 예술마을 만들기 축제*

III 거버넌스의 힘

공유성북원탁회의가 민간의 영역이라면 성북문화재단은 공공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북문화재단은 서울시 성북구에서 2012년 9월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하나이다. 성북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진흥하고 주민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렇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전국 100여 개 내외의 지역문화재단은 아트센터 혹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기존 지자체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연장이나 도서관, 미술관, 생활문화 공간, 스포츠시설 등 기존 시설 운영만으로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층위에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일을 상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생태계의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로 '문화예술'이 자리 잡을 따름이다. 하지만 문화/술은 특정 분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삶의 조건을 바꾸는 일에 가깝다. 공연이나 전시, 축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성북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이 갖는 현실적 한계를 깨닫고 설립 초기부터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애써왔다. 그것은 단순히 수평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 이상의 지역문화생태계의 참여와 변화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작업의 일환이었다. 지역문화는 지자체가 문화 관련 시설을 많이 만들고, 지역축제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문화는 그 생태계를 실제로 구성하는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갈 때 지속성과 생명력을 갖는다. 그것은 곧 지역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지역문화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생태계를 지역생태계와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세금으로 공공문화시설을 운영하고, 그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단이라는 일종의 공공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문화생태계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지만 재

단법인이라는 이사회를 통해 자율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라는 행정조직과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조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단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어디에 두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단과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만남과 협력은 지역사회와 지역문화에 전혀 다른 효과를 낳을 수 있었다. 최근 공공과 민간의 만남은 사업이나 프로젝트 중심으로 만나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관계 역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민간의 활동가나 예술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 서로 친숙한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성북구라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은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쌓아가면서 동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상호 신뢰 관계를 축적했다. 문화재단은 이러한 모임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대관하거나 모임의 기본을 준비했다. 부정기적이고 유동적인 민간 주체들의 한계를 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한 자신들의 의사와 업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문화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고, 각각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격려와 축하가 공존한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 새로운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IV. 성북의 실험, 그 변화와 성과

이렇게 되면 단순한 개별적 아이디어나 활동을 넘어 공유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좀 더 체계적인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고, 문화재단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나아가게 되면 안정적인 기반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계와 구조를 통해 마을 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지역축제, 예술가 및 청년, 상인,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일구어가는 '예술마을 만들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동네 문화예술교육, 여러 분야의 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지역 내 건강한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데까지 다양한 실험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지역축제의 변화를 보면,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지역축제는 상업적 기획사가 입찰 공모를 통해 축제를 주관하게 되면서 비슷한 지역축제가 난무하게 되었다. 도시의 기획자와 예술

그림 3. *공유성북원탁회의 누리마실*

가들이 함께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콘텐츠와 분위기가 지역공동체의 활력이 담기게 된다. 지역예술가와 기획자, 활동가들이 모여서 축제 민간사무국을 꾸리고 축제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축제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위해 '축제아카데미'와 '축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축제를 둘러싼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성북구의 대표축제인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의 경우에도 공유성북원탁회의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조직되고 그 협동조합과 함께 협치형 축제모델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공공공간에 대한 공동운영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공극장이나 복합문화공간은 공공에서 운영하거나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인데, 법적으로 문화재단이라는 위탁 방식을 사용한 후에는 재위탁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공동운영 협약'을 통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미아리고개 예술극장'은 '마을 담은 극장 협동조합'과 공동운영을 통해 기획과 운영 등에 있어 예술가들의 참여를 적극 수용하고 실천하고 있어 공연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방치되어 있던 미아리고개 고가 하부공간을 '미인도(미아리고개+사람+길)'라는 이름의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역시 '고개엔 마을 협동조합'과의 공동운영을 통해 전시와 공연, 목공소, 놀이터, 마켓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의 산실이 되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 건물의 새로운 실험을 통해 성북구에서 가장 큰 성북정보도서관 지하의 낡은 다목적홀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술가들과 함께 '천장산 우화극장'이라는 블랙박스형 공공극장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같은 도서관 5층 개인열람실을 '꿈 자람 어린이미술관'으로 변신시켰다. 단일한 도서관 건물이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 다양한 복합시설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신이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역예술가들의 아이디어와 협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이다.

이처럼 공유성북원탁회의와 성북문화재단의 협치는 성북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를 그 어디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수준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공유성북원탁

그림 4. *미아리고개 목공소*

회의는 2017년 '성북 명예의 전당' 문화예술 분야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한국의 지역 정치 차원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공유성북원탁회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예술가들이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주거공동체의 뿌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2017년 문화예술인만을 위한 임대주택 19가구가 제공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 138가구의 임대주택이 새롭게 제공되면서 70가구 이상의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의 변화는 예술가들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일터와 삶터가 일치하게 되면서 예술가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동네 주민자치회에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정책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예술가는 시민(주민)이다. 당연한 명제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예술

가를 주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주민들은 예술가를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소수의 문화예술인들이 동 단위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많은 시간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예술가도 주민이라는 인식을 주고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보다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좌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울을 예로 들더라도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직능단체 혹은 자생 단체 중심의 지역사회생태계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상당 부분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을 발견하거나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드물었다.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활동은 민간 개인의 차원에서 움직이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동네'로 진입하고 있다. '동'이라는 행정 단위로도 묶이지 않는 작은 골목과 전통시장에서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일상과 만남으로써 일시적인 효과로서 문화예술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림 5. *미아리고개 마을 장터 고개장*

볼 수 있다. 이것은 숫자나 성과로 나타나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나 '연대감'과 같은 느낌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복원에 다름 아니다. 공동체는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체적인 일상이며,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표정이다.

V. 동네 친구로 살아가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대단한 조직 같지만 단단한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유연한 플랫폼에 가깝다. 공유성북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은 철저하게 연결과 공유, 연대와 확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성북원탁회의의 확장은 결국 주체, 즉 사람을 통해 가능하다.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의 문제이며, 그들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포함한 문화적 실천과 정치적 표현 등 삶의 모든 실천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를 가리킨다.

지역은 구체성과 다양성이 잘 담겨 있는 공간이다. 추상적인 가치가 구체적인 현장과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 드러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책 사례'라고 부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 사례들이 페이퍼나 자료로 남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이다. 왜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더 지속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지역문화를 하나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성공이나 특정 사례는 될지언정 지속적인 사례로 살아남지 못한다. 지역은 정치와 문화, 경제, 교육, 사회 등의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는 최종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화를 볼 때 통합적이고 온전한 관점이 필요하다. 그것은 활동(일)과 생활의 분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온전한 과정을 전제로 고민할 때 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처럼 어떤 이론이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문화 협치와 마을 자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견해, 인종, 성별, 장애, 세대 등

차이를 뛰어넘어 문화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지역공동체를 상상하는 일이다.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며,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친구'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고, 나아가 나의 일상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다.

그림 6. *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천 세월호 깃발 행진*